

한국Bayer, 프레드릭 가우제 대표 임명

Bayer Health Care는 10월1일자로 프레드릭 가우제(Friedrich-Wilhelm Gause) 신임 사장을 한국바이엘헬스케어 대표로 임명했다.



가우제 신임 사장은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등에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한국바이엘헬스케어의 중장기 발전 전략 개발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.

바이엘쉐링제약 영상진단 사업부 글로벌 전략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온 가우제 사장은 바이엘쉐링제약 자회사인 인텐디스의 사장을 역임했고, 1990년대 중반 중국 쉐링제약의 영업마케팅 총괄책임자로 재직한 바 있다.

가우제 사장은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산업공학 및 경영학을 전공했다.

<화학저널 2008/09/30>